



‘공중 부양’ 쿵후

30일 중국 난징의 무술학교에서 수업중인 2명의 중국학생들이 쿵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6세에서 16세 사이 100여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이 학교에서 중국의 전통무술을 배우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영표 “안간다”

AS로마행 무산...토티햄 잔류

이영표(29)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AS로마 이적이 무산됐다. 이영표의 에이전트사인 루지센은 30일 오후 “AS로마 구단과 현지에서 협상을 벌여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지만 이영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종 사인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영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티햄 핫스파에 잔류하게 됐으며, 아시안컵 예선을 앞둔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 31일 귀국해 공식 입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동국 지낸 대표는 지난 29일 이탈리아로 출국해 AS 로마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토티햄과 AS 로마 두 구단이 이영표의 이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AS 로마와 연봉,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선수 동의 절차만을 남겨뒀기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된다”고 밝힌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달 2일 아시안컵 예선

이란 대표팀 어제 입국

다음달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기 베이백호’와 2007 아시안컵축구 B조 예선 3차전을 치르는 이란대표팀이 30일 새벽 입국해 시차 적응에 들어갔다.

신임 아미르 갈라노이에 감독이 이끄는 이란은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보다 한 명 많은 23명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입국 일정을 바꾸고 꼭두새벽에 들어오는 가 하면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단 명단을 전달하지 않는 등 ‘도깨비팀 행보’를 보인 이란은 속소인 김포공항 근처 메이필드호텔에 여장을 풀었지만 아직도 명단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생명 우승

KT&G 3대1로 제압

MBC 그랑프리 탁구

삼성생명이 2006년 KAL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에서 라이벌 KT&G를 꺾고 남자 실업팀 정상에 복귀했다.

삼성생명은 30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실업 6년차 동기 유승민과 윤재영의 맹활약을 앞세워 오상은이 이끄는 KT&G를 3-1로 물리쳤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지난 해 12월 종합선수권대회 제패에 이어 8개월 만에 실업 최강자 위용을 뽐냈으나 KT&G는 지난 2004년 전국체전 우승 이후 2년 넘게 정상 길목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불운에 시달렸다.

2004 아테네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과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 3위 오상은의 에이스 대결로 관심을 모은 결승에서 삼성생명이 웃었다.

지난 5월 종합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KT&G에 2-3으로 달미를 잡았던 삼성생명은 그동안 오상은에게 약점을 보였던 간판 유승민을 4단식으로 빼고 대신 1단식인 원소 세이크랜드 윤재영을 기용해 승부수를 띄웠다.

1단식을 내줄 걸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친 윤재영이 강한 투지로 국내 실업랭킹 1위 오상은의 벽을 허물었다.

국내 대회 상대전적 1승7패로 절대적 열세였던 윤재영은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포어핸드와 백핸드 드라이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오상은의 허점을 파고 들어 2세트를 잡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3, 4세트를 주고 받아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물고 갔다.

윤재영은 5세트 들어 서브에 이은 상대 왼쪽 테이볼 구석에 꽂히는 드라이브로 8-5 리드를 잡은 뒤 오상은의 추격에 휘말려 듀스를 허용했지만 상대의 잇단 범실을 유도해 1단식을 3-2로 따내며 기세를 올렸다.

기선 제압에 성공한 삼성생명은 2단식에서 2003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준우승 패거리의 ‘수비 달인’ 주세혁을 투입해 이면타법을 구사하는 원소 펜홀더 이정삼을 3-0으로 완파하며 승기를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6 KAL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 KT&G 김정훈 대 삼성생명 유승민의 단식 경기에서 유승민이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백호 2기’ 선발 경쟁 돌입

포백 활용...미드필더 배열 유동적

차두리 대타, 송종국·조원희 대상

다음 달 2일 상암벌에서 이란과 실질적인 데뷔전을 갖는 2기 베이백호(號) '선발 라인업' 경쟁이 시작됐다.

킴 베이백 축구대표팀 감독은 31일 낮 12시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태극전사들을 소집한다.

25명을 뽑았지만 차두리(마인츠)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합류가 불발됐고 이탈리아 세리에A AS 로마로 이적하는 이영표도 귀국하기 힘들어 23명이 '두 배수' 경쟁을 하게 됐다.

지난 해 10월 아드보카트호가 데뷔전을 치를 당시 A매치 상대도 이란이었다. 그 때는 3-4-3 포메이션을 썼는데 박주영(서울), 이동국(포항),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스톱(3-top)으로 나섰다.

베이백 감독은 포백(4-back)을 구사한다. 이번에도 수비 요원을 10명이나 뽑았다. 차두리, 이영표가 빠지면 8명이 되지

만 포백을 쓰기에 충분한 숫자다.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다고 볼 때 왼쪽 윙백은 아드보카트 감독을 따라 러시아리그에 데뷔한 김동진(제니트)이 유력하다. 이 자리에는 장학영(성남)이 뒤를 받친다.

오른쪽에는 애초 차두리를 시험해보려고 했지만 합류하지 못한 만큼 송종국, 조원희(이상 수원)의 한솔합 선·후배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 중앙 수비수는 김영철, 김상식(이상 성남), 김진규(이와타)가 버티고 있고 새로 합류한 조성환(포항)이 경쟁 변수로 떠올랐다.

수문장에는 경기의 비중을 감안해 '돌아온 캡틴' 이운재(수원)를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꽤 오래 실전에 나서지 못한 만큼 김영광(전남)을 내보낼 수도 있다.

미드필더진은 배열 자체가 유동적이다. 지난 16일 대만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 명 세우는 역삼각형 포진을 썼지

만 이번에는 유럽과 6명이 전원 출동한 이란의 전력을 고려할 때 수비형 두 명을 두는 정삼각형 형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이 어디에 서느냐가 전체 구도를 바꿀 수 있다. 박지성은 명단에는 포워드(공격수)로 분류됐지만 윙 포워드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대표적 '멀티 자원'이다.

박지성이 중원에 들어오면 김두현(성남), 백지훈(서울)은 교체 멤버가 된다. 경기 도중 이른바 '박지성 시프트'를 써서 박지성의 위치를 바꾸고 김두현 등을 투입할 수도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남일(수원)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호(제니트), 이윤용(서울)이 남은 한 자리를 다룬다.

중앙 포워드로는 조재진(시미즈)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환을 뺀 뒤엔 경쟁자는 정조국(서울) 뿐이다.

중량감에서 월드컵 경험이 있는 조재진이 앞선다.

좌·우 측면 포워드에는 설기현(레딩)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한 자리는 박지성이 서거나 이천수(울산)가 기용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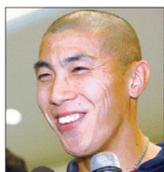
차두리 '사타구니 부상' 대표팀서 제외

9개월 여 만에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아우토반' 차두리(26·FSV 마인츠05·사진) 부상으로 베이백호 승선 멤버에서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마인츠 구단이 29일 밤 '차두리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대표팀 합류가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킴 베이백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마인츠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두리를 아시안컵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보직 변경된 차두리는 29일 베이백 감독이 발표한 아시안컵 예선 이란(9월2일·서울), 대만전(9월6일·수원) 예비 명단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네그로와 평가전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부상으로 태극마크를 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